

광주 도심에 분산에너지 특화모델 만든다

NEWS

2025년 4월 10일 목요일

시, 한전KDN 등 기관·기업 협약...동·남·북구에 추진 전력거래 실증·통합플랫폼 운영...분산에너지특구 신청

광주시가 지역에 최적화된 분산에너지 모델을 구축, 새로운 에너지시대를 선도한다.

광주시는 9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에너지공기업, 에너지기업, 협력기관 등과 '광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특화지역 조성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이는 대규모 발전 설비로 전력을 생산하고 송전·배전 설비를 통해 각 지역으로 보내는 중앙 집중형 에너지 공급 시스템의 에너지 손실, 송전 설비 비용, 지역별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 해결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박상형 한전KDN 사장, 김승남 광주도시

공사 사장, 유병천 ㈜레플러스 대표, 전석 ㈜그리다에너지 대표, 김찬영 광주테크노파크 본부장 등 6개 기관·기업 대표가 참여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조성, 분산에너지 정책수립 및 실현, 분산에너지 실증 및 신기술 개발, 에너지산업 관련 기업 육성 지원 등이다.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들은 동구, 남구, 북구에서 신산업 활성화형 모델로 도심형 분산에너지 마켓플레이스 실증을 추진한다.

신산업 활성화형 모델은 태양광,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분산에너지원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연계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시범 적용하고 특화지역을 전력신산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동구는 1MW 태양광발전을 활용해 RE100 수요기업과 전력거래를 실증하고 RE100 메가스테이션을 활용해 분산에너지 통합플랫폼을 운영한다.

남구는 신효천마을 태양광발전소를 활용해 마을주민 간 전력거래와 인근 공동주택 내 전기차충전기에 전력공급을 추진한다.

북구는 1MW 태양광발전 전력을 10MWh 전기저장장치(ESS)에 저장해 인근 기업과 거래하는 비즈니스모델을 실증한다.

광주시는 협약 기관·기업과 협력해 산 일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4월 중에 신청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협약으로 AI기업과 협약기관의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분산에너지 특화모델을 추진해 에너지자립율이 낮은 내륙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전력수요 안정화와 에너지신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분산특구 지정의 중요



강기정 광주시장이 9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박상형 한전KDN사장,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 유병천 ㈜레플러스 대표, 전석 ㈜그리다에너지 대표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특화지역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이번 협약은 광주 '것'이라며 "참여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도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 RE100·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센터 문 열어

녹색에너지연구원에 재생에너지 거래 플랫폼 구축

전남도는 9일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전남도 RE100·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 현대삼호, BS산업, MC에너지,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남테크노파크 등 도내 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센터 출범을 함께하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남은 전국 1위의 태양광·해상풍력 발전 잠재량과 설비를 갖춘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생산지로,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의 흐름 속에서 청정에너지를 확보하려는 국내의 기업들로부터 투자 최적지로 주목

받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해 4월 녹색에너지 연구원에 설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TF의 인력과 기능을 재정비하고, 도내 재생에너지100(RE100)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지원할 전담기관으로 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재생에너지 거래(PPA) 플랫폼 구축·운영, 가격경쟁력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지원,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AI·ICT) 기반 에너지 신산업 발굴 및 유망 스타트업 지원 업무 등을 중점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거래 플랫폼은 도내 재생에

너지 발전소가 전남지역 기업을 위한 안정적인 RE100 전력 공급원으로 활용되도록 중개 역할을 하며, 올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또 지역 분산에너지 자원과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에너지 신사업 모델, 유망 스타트업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데이터센터 등 첨단기업 유치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확대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창환 부지사는 "전남은 RE100과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최적화된 산업 여건을 갖췄다"며 "앞으로 지역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조성을 통해,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등 첨단산업 유치를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



전남도는 9일 진도군수협로컬푸드센터에서 '일일 마른김 거래소'를 운영했다.

'일일 마른김 거래소' 시범 운영 12억 거래 도, 김 가격 경쟁력 강화·세계화 선도 토대 마련

전남도는 9일 진도군수협로컬푸드센터에서 '일일 마른김 거래소'를 시범 운영해 12억원 상당의 김을 거래했다.

'일일 마른김 거래소' 시범 운영에는 해양수산부, (사)한국마른김생산자연협회, 마른김 가공기업, 바이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마른김 거래는 가공업체와 도매업체, 수출업체 등이 직접 계약해 이뤄지다 보니 거래 가격 형성이 불투명했다. 품질과 상관없이 시장가격이 결정되는 등 유통체계가 투명하지 않아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열린 '일일 마른김 거래소'는 출하자와 구매자가 한자리에 모여 경매를 통해 가격 결정에 참여하는 투명한 거래 시스템으로 운영됐다.

특히 목포 수산식품 수출단지에서 구축 중인 '국제 마른김 거래소' 본격 운영에 앞서 마른김 거래 사전 점검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국제 마

른김 거래소'는 전남 마른김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거래엔 마른김 생산업체 38개소에서 7종의 제품을 출품하고 15개 사바이어 30명이 참석했다. 마른김 견본품을 확인 후 정해진 시간까지 (사)한국마른김생산자연협회에서 구성된 사무국에 입찰서를 제출한 후 출품업체가 제시한 기준 가격보다 높은 입찰 가격 중 최고가액을 제출한 바이어(입찰참가인)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낙찰 가격은 1속당 9000~1만2000원 선에 형성됐으며, 총 9000박스(58만속) 60억원 상당이 거래됐다.

전남도는 케이김의 세계화를 위해 국립 김산업진흥원 건립, 마른김 가공공장 시설개선 사업(300억원), 국제 마른김 검사 및 거래소 플랫폼 구축(230억원) 등을 통해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 김 산업을 계속 확장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주택 태양광 설치비 지원 확대 시, 올해부터 단독주택도 포함

광주시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설치 희망 세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2045 탄소중립 전환사회' 실현을 목표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 2015년부터 추진 중이다. 광주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007세대에 미니태양광 설치(30억원)를 지원했다.

올해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의 경우 예년과 달리 지원대상은 물론 인센티브를 확대, 추진한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단독주택도 신청 가능하다. 자부담도 기존 30%에서 20%로 경감됐다.

기존 설치 세대에 추가설치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확대됐다.

미니태양광(390~445W) 1개소 설치비는 84만원~95만원으로, 광주시가 80%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즉, 신청가구는 20%(16만8000원~19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지 내 다수 세대가 참여할 경우 세대당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8~9%(6만8000원~9만원)의 자부담만으로도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일반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전기사용량은 약 307kWh(6만90원)로,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월 45kWh 내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나 소유예정자여야 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법사위 '12·29 여객기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15세 미만

희생자에게는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한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희생자 추모, 유가족의 자조 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 방지 등을 돕고자 설립된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15세 미만

공공기관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추모 공원 조성도 추모기념관 건립과 관련된 조항도 포함됐다.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봉사와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12·29 여객기 참사에 따른 영업활동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에 대한 특별지원방안도 법안에 담겼다.

이성오 기자

잘하고 싶다 자라고 싶다

두 가지 모두를 꿈꾼다면
한화생명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싶다면
누구보다 다양한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면
당신의 시작은 달라야 합니다
체계적인 교육시스템과 지원이 함께 하는
한화생명에서 남다른 시작을 여십시오

한화생명에서 시작해야 하는 이유

- 체계적인 성장지원**
시스템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한 사람의 신인FP가 전문가로 거듭나기까지, 한화생명의 지원은 멈추지 않습니다!
- 강력한 활동지원 시스템**
가망고객 발굴부터 계약 후 관리까지-다양한 시장확보 지원과 모바일 활동지원으로 고객을 만나는 일이 더 즐거워집니다!
- 탄탄한 보상체계**
활동 초기 든든한 정착지원은 기본!
더 큰 성과에는 그에 맞는 실질적 대우를 약속합니다!

한화생명 FP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hanwhalife.com
본 광고는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서를 모의하는 것으로, 청구 또는 비정규 직원 채용과는 무관합니다.